

##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야고보서 —

신현우\*

이 글의 목적은 『새한글』 역본의 야고보서 번역을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면서 이 역본이 기여한 장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역본이 기존의 번역들보다 원문을 좀 더 잘 반영하고 독자들이 읽기 쉬움을 몇 가지 예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역본을 토대로 하여 좀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제안하는 것입니다.<sup>1)</sup>

### 1. 야고보서 2:18

GNB<sup>5</sup>

‘Ἄλλ’ ἐρεῖ τις, Σὺ πίστιν ἔχεις, καὶ γὰρ ἔργα ἔχω. **δεῖξον**  
**μου τὴν πίστιν σου χωρὶς τῶν ἔργων**, καὶ γὰρ σοι δεῖξω ἐκ τῶν ἔργων μου τὴν πίστιν.

『개역개정』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새번역』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hyeonwooshin@yahoo.com](mailto:hyeonwooshin@yahoo.com).

1) 자세한 논증은 신현우, “야고보서 난해 구절 번역 — 야고보서 2:18과 4:5-6 —”, 『성경원문 연구』 47 (2020), 168-190을 참고하십시오.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공동개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동이 있소.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오”

『새한글』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세요 행함을 떼어 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 드릴게요.”

### 1.1. 차이점 관찰

위에서 언급된 한글 번역본들은 모두 야고보서 2:18에서 어떤 사람의 말로 인용되는 부분이 이 구절 끝까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 인용된 내용은 야고보의 주장에 일치하는 견해를 가진 어떤 사람의 말입니다. 『개역개정』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번역하는 부분에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유사하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새한글』은 ‘나에게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세요. 행함을 떼어 놓고요.’라고 번역하여 이 문장의 의미가 행함 없는 믿음을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있음을 입증해 보라는 것임을 알려 줍니다.

### 1.2. 외국어 역본 참조

ESV, NKJ, NRS 등 상당수의 번역본들은 어떤 사람의 말이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라는 부분에만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은 이 인용문에 동의하는 야고보 자신의 설명이며, 이것은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NIV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I have deeds.”  
Show me your faith without deeds,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what I do.

ESV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and I have works.” Show me your faith apart from your works,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works.

NKJ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and I have works.” Show me your faith without your works,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works.

NRS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and I have

works.” Show me your faith apart from your works,  
and I by my works will show you my faith.

###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글 번역본들과 주요 영어 번역본들의 이러한 차이점은 이 구절에서 어디까지가 인용문인지 애매하여 문맥을 통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기에 발생하였습니다.

###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글 번역본들의 경우처럼 이 구절 끝까지 모두 인용문이라면, 인용되는 내용은 야고보와 동일한 견해를 가진 어떤 사람의 논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위의 영어 번역본들의 경우에는 앞부분은 그러한 사람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고, 뒷부분은 그러한 주장에 담긴 논리를 설명하는 야고보의 글입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너는 믿음이 있고’로 번역한 그리스어 문장 ( $\Sigma\pi\iota\sigma\tau\iota\pi\ \epsilon\chi\epsilon\iota\zeta$ )만이 인용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인용문을 의문문으로 간주하여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인용문은 야고보를 공격하는 가상의 논적의 말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지 묻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은 야고보에게 믿음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야고보는 ‘그러나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kappa\grave{\alpha}\gamma\grave{\omega}\ \epsilon\rho\gamma\alpha\ \epsilon\chi\omega$ )’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글을 통하여 행함이 있는 자신에게 믿음도 있음을 논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여 번역하면 19절 이하에서 행함을 무시하는 가상의 논적을 비판하는 문맥에 부합합니다.<sup>2)</sup>

## 2. 야고보서 2:20

GNT <sup>5</sup>	θέλεις δὲ γνῶναι, ὡς <u>ἄνθρωπε κενέ</u> , ὅτι ή πίστις χωρὶς τῶν ἔργων ἀργή ἐστιν;
『개역개정』	아아 <u>허탈한 사람아</u>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새번역』	아, <u>어리석은 사람이여</u> ,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2) 자세한 논증과 번역 제안은 Ibid., 169-176을 참고하십시오.

『공동개정』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새한글』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 2.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이 ‘허탄한 사람아’라고 번역한 부분을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어리석은 사람이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한글』은 ‘머리가 빈 사람이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 2.2. 외국어 역본 참조

ESV는 이 부분에서 ‘foolish person’이라고 번역했고, NIV와 NKJ는 ‘foolish man’, NRS는 ‘senseless person’을 번역어로 사용했습니다.

NIV      You foolish man, do you want evidence that faith without deeds is useless?

ESV      Do you want to be shown, you foolish person, that faith apart from works is useless?

NKJ      But do you want to know, O foolish man,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NRS      Do you want to be shown, you senseless person, that faith apart from works is barren?

##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개역개정』의 ‘허탄한 사람’이라는 번역은 무슨 뜻인지 애매합니다. 다른 번역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합니다. 특히 『새한글』의 ‘머리가 빈 사람이여’는 그리스어 표현(ἄνθρωπε κενέ, ‘텅 빈 사람아’)의 문자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합니다.

## 3. 야고보서 4:4

GNT<sup>5</sup>      μοιχαλίδες, οὐκ οἴδατε ὅτι ἡ φιλία τοῦ κόσμου ἔχθρα τοῦ θεοῦ ἔστιν; δις ἐὰν οὖν βουληθῇ φίλος εἶναι τοῦ κόσμου, ἔχθρὸς τοῦ θεοῦ καθίσταται.

『개역개정』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

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새번역』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  
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개정』 절조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짹하면 하느님을 등지  
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  
『새한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친구 맷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맷는 것 아닙  
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 3.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이 ‘간음한 여인들아’로 번역한 부분에서, 『새번역』은 ‘간음하  
는 사람들이여’라고 하여, 이 권면의 대상이 단지 여인들만이 아니라 남자  
들을 포함함을 명확히 합니다. 『공동개정』은 ‘절조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  
역하여, 이 구절이 지적하는 잘못이 육체적 간음보다 폭넓은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새한글』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여’라고 하여 이 구절의 주제  
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짹하는 영적 간음의 문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 3.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성경에서는 ‘adulterous people’, ‘Adulterers and adulteresses’, ‘Adulterers’  
등을 번역어로 사용하여 여인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권면의 대상임을 분  
명히 합니다.

ESV	You <u>adulterous people!</u>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NIV	You <u>adulterous people</u> ,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atred toward God?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NKJ	<u>Adulterers and adulteresses!</u>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ever therefore want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NRS      Adulterer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이러한 번역들 뒤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μοιχαλίδες*)가 여성형이어서 직역하면 ‘간음하는 여인들’이 되지만, 근접 문맥을 고려하면 이 단어는 남편을 배신한 아내들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성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역의 경우에는 독자들이 이 구절이 특정한 여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하여 『새한글』의 경우처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여’라고 번역하면, 영적 간음의 문제가 지적됨이 명확해져서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 4. 야고보서 4:5

GNT<sup>5</sup>      ἦ δοκεῖτε ὅτι κενῶς ἡ γραφὴ λέγει,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  
『개역개정』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  
                        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공동개정』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새한글』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이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신 그 영을 하나님이 시  
                        샘하실 정도로 몹시 그리워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 4.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부분이 구약성경의 인용이라고 간주합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들도

이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개역개정』은 시기하고 사모하는 행위의 주체가 성령인데, 다른 한글 번역들에서는 하나님이 그 주체이고 성령이 목적어입니다.

#### 4.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들에서도 시기하고 사모하는 행위의 주체가 서로 다르게 번역 되었습니다. NIV, NKJ 및 ASV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주체가 성령이며, ESV와 NRS에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며 성령은 목적어입니다.

NIV, ESV, NKJ, NRS에서는 구약성경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한글 번역본들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ASV에서는 이 부분을 구약성경의 인용으로 보지 않으며, 수사 의문문으로 간주합니다.

NIV	Or do you think Scripture says without reason that <u>the spirit</u> he caused to live in us <u>envies intensely</u> ?
ESV	Or do you suppose it is to no purpose that the Scripture says, “ <u>He yearns jealously over the spirit</u> that he has made to dwell in us”?
NKJ	Or do you think that the Scripture says in vain, “ <u>The Spirit</u> who dwells in us <u>yearns jealously</u> ”?
NRS	Or do you suppose that it is for nothing that the scripture says, “ <u>God yearns jealously for the spirit</u> that he has made to dwell in us”?
ASV	Or think ye that the scripture speaketh in vain? Doth <u>the spirit</u> which he made to dwell in us <u>long unto envying</u> ?

####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번역본들에서 구약성경의 인용으로 간주된 그리스어 문장(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τὸ πνεῦμα)는 중성형이어서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격으로 간주하여 성령을 주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간주하여 성령을 목적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히브리어 어순을 종종 취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합하는 해석은 성령을 주어로 간주하는 번역입니다.<sup>3)</sup>

ASV의 경우 이 그리스어 문장을 구약 인용이 아닌 야고보의 진술로 간주합니다. 이 문장은 구약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단은 정당

3) 자세한 논증과 번역 제안은 Ibid., 180-183을 참고하십시오.

합니다. ASV는 이 그리스어 문장을 평서문이 아닌 수사 의문문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간주할 때, 이 문장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자를 성령께서 시기하여 사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문장은 다음 절에서 인용되는 구약 구절(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지적하는 구절)과 잘 조화되므로 문맥에 부합합니다.

####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성령을 주어로 간주하고, 마지막 문장을 수사 의문문으로 간주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sup>4)</sup> 이 마지막 문장은 구약성경 인용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구약 인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언급한 구약성경은 다음 구절(6절)에서 언급됩니다.

### 5. 야고보서 4:6

GNT<sup>5)</sup>

**μείζονα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ν;** διὸ λέγει, 'Ο θεὸς ὑπερηφάνιοις ἀντιτάσσεται, ταπεινοῖς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ν.

『개역개정』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새번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공동개정』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한글』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 5.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가 구약 인용임을 독자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논증과 번역 제안은 Ibid., 176-184를 참고하십시오.

다. 그러나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은 무엇이 구약성경 인용인지 인용 부호를 통하여 명확히 표시합니다.

## 5.2. 외국어 역본 참조

독일어 <루터성경>(이하 LB, 1984)은 『개역개정』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로 번역한 부분을 의문문으로 간주하여 번역합니다(‘und gibt um so reichlicher Gnade?’). 네덜란드어 번역(Leidse Vertaling[이하 LEI, 1994])도 그렇습니다(‘maar Hij geeft des te groter genade?’).

LB(1984)	<b><u>und gibt um so reichlicher Gnade?</u></b> Darum heißt es: Gott widersteht den Hochmütigen, aber den Demütigen gibt er Gnade.«
LEI	<b><u>maar Hij geeft des te groter genade?</u></b> Daarom zegt Hij: God weerstaat de hovaardigen en bewijst gunst aan de deemoedigen.

##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이 구절의 첫 문장을 의문문으로 간주한 외국어 번역들은 GNT<sup>5</sup>가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간주하여 의문 부호를 붙인 것과 일치합니다(μείζονα δὲ διδωσιν χάριν;). 다른 번역들은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 구절의 첫 문장을 의문문으로 간주하면, 이 문장은 야고보의 주장을 담은 평서문이 아니라, 야고보가 반대하는 내용을 비판하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수사 의문문은 곧이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조화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짹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성경 구절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용되어 제시된 것입니다. 이 구약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짹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신앙의 절조를 지키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GNT<sup>5</sup> 및 LB(1984) 등을 따라, 이 구절의 첫 문장을 수사 의문문으로 번역하면 독자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sup>5)</sup>

5) 자세한 논증과 번역 제안은 Ibid., 183-184를 참고하십시오.

<주제어>(Keywords)

야고보서 2:18, 야고보서 2:20, 야고보서 4:4, 야고보서 4:5, 야고보서 4:6.  
James 2:18, James 2:20, James 4:4, James 4:5, James 4:6.

(투고 일자: 2024년 7월 26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개재 확정 일자: 2024년 9월 26일)